



사 진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4. 18.(금) 배포 2025. 4. 18.(금) 14:00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전하는 봄의 인사 ‘새우난초’ 개화

국립세종수목원 희귀특산식물전시온실에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새우난초속(*Calanthe*)이 꽃을 피워 장관을 이루고 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4월 초부터 국립세종수목원 희귀특산전시온실에 새우난초가 개화했다고 밝혔다.

새우난초는 땅속에서 옆으로 기어가듯 자라는 덩이뿌리 모양이 새우등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졌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금새우난초, 한라새우난초, 신안새우난초를 비롯한 자생 새우난초 6종과 품종 30여 종을 5월 중순까지 만나 볼 수 있으며 자란, 쫓대초령목, 푸른가막살 등 이 시기에만 피는 꽃들도 볼 수 있다.

담당 부서	국립세종수목원 서비스본부 전시원실	책임자	실 장	박원순 (044-251-0143)
		담당자	대 리	김혜원 (044-251-015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국립세종수목원 희귀특산식물전시온실을 방문한 관람객이 희귀식물 신안새우난초를 관람하고 있다.



2. 국립세종수목원 희귀특산식물전시온실에 개화한 희귀식물 한라새우난초



3. 국립세종수목원 희귀특산식물전시온실을 방문한 관람객이 꽃대초령목을 관찰하고 있다.